



꼭 해주고 싶었던 말

외솔중 2-1 박소이

조그마한 글씨로 열 줄이 넘는 너의 편지

군데군데 '미안해'가 묻어있네

생일 선물 못 줘서 미안하다고...

글 고칠 때 쓰는 빨간 색연필로

너의 미안해를 지워봐

아래에 답장한 줄

미안해하지 마, 선물을 못 주긴 무슨

함께 걷고 싶다며 날 데려간 길 수놓아져 있던 단풍잎

편의점 처마 아래 너랑 서서 그치길 기다렸던 비의 푸른 내

서로 잡으려고 뛰어다니던 그해 첫 눈송이의 새하얀 냉기

늦게까지 고민과 위로를 나누던 여름 끝 무렵의 모깃소리

헤어질 때면 승강기 문이 닫힐 때까지 손 흔들어주던 너의 모습까지

그 작디작은

초라한

사소한

찰나의 조각들이

네 편지 위에 겹겹이 내려앉아

가장 찬란한 선물을 만들어주고 있잖아

